

허혈성심질환 관련 국내 간호연구 동향

이 종 율* · 이 향 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속한 경제발전, 생활양식의 변화, 의료기술과 의료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질병발생과 양상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특히 허혈성심질환은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와 노령인구의 증가, 경제발전과 사회의 복잡화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 등 관련위험요인의 증대와 함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관상동맥 질환자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비율로 살펴보면, 1990년 10.4명에서 2000년에는 21.5명으로 10년 사이에 이의 발생률은 2배가량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0). 심혈관질환은 미국을 비롯한 영국, 핀란드 등 서유럽 등에서 성인 사망원인 1위의 중대한 질환으로서, 구미국가들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질환으로서 인식되어져,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보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Nolan & Nolan, 1998).

허혈성심질환(Ischemic Heart Disease)이란 일반적으로 심장의 관상동맥에 죽상경화증(atherosclerosis)으로 인해 협착이 생겨 심장근육의 혈류공급에 장애가 생겨 임상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급사(급성사망)의 세 가지 중 하나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오복자, 1994).

이러한 허혈성심질환은 약물투여, 식이, 운동, 습관, 정기적 검사, 정기적 병원방문 등과 같은 건강행위의 이행으로 이

차적인 육체적, 사회적 무능력을 예방하고, 기능적 능력과 심리적 안녕을 향상시키며, 건강관리 비용 뿐 아니라 심장발작 및 심근허혈의 위험을 감소시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다(이원로, 1998; Jeng & Braun, 1997; Niebauer et al., 1994).

국외의 경우, 허혈성심질환에 대한 연구는 관상동맥질환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Vecchia, 1992), 관상동맥 질환관리 간호사 교육프로그램(Scheuer, 1972), 관상동맥질환환자의 운동과 식이에 관한 연구(Stewart & Goldberg, 1992), 간호교육 요구도와 지식수준을 알아본 연구(Moynihan, 1984)등 기초적인 조사연구에서부터 최근에는 관상동맥질환자의 심장재활프로그램 개발과 그 적용효과 그리고 비용절감에 대한 연구(Ades, Pashowkow & Nestor, 1997; Conn, Taylor & Casey, 1992; Thompson, 1995), 심장질환자의 가족을 위한 연구(Brennan & Brashlow, 1998; Kliegel et al., 1999; Platz et al., 2000),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Asadi-Lari, Packham & Gray, 2003; Gott, Gu, Cantley, Sheedy & Cohen, 2003)등이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허혈성심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유병율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요성에 입각한 다각도의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오고 있다. 간호학의 발전과 학문으로서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간호현상 연구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결과들을 종합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이은옥 외, 1992). 특정분야나 특정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연구논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반복연구를 피하고, 선행연구로부터 더욱 정련화되고 확대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서 최근에 연구문헌을 고찰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수진과 최경숙(1999)은 국내 관상동맥질환 관련 학위논문 분석을 시도하여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연구동향을 보고한 바가 있으나, 이는 간호학 및 간호학 관련 학위논문의 일부(18편 대상)에 한정된 분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회환경의 변화, 국민건강증진법의 제·개정 등으로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접근방법의 변화,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관상동맥질환 대상자들에 대한 간호의 적극적 방향으로의 전환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관상동맥질환 간호의 현재와 미래의 연구방향을 설정하기위해 최근의 연구동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1999)의 보고에 의하면 허혈성심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상승이 대두되면서, 본 질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어져 간호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제에서의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부의 특정 학위논문의 분석에 그쳤던 선행연구에서 한층 나아가 1980년대부터 2003년까지 국내의 허혈성심질환 관련 학위논문, 비학위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각 논문에 대한 연구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여 현재까지 연구된 허혈성심질환 관련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내용과 결과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지향해야할 간호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논문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허혈성심질환을 주요개념으로 다룬 간호학 및 간호학 관련논문을 모집단으로, 1980년부터 2003년 2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자DB는 한국보건정보센터(<http://richis.org>), 국회도서관(<http://nanet.go.kr>), 대한간호협회(<http://koreanurse.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riss4u.net>)에서 제공하는 논문들로서, 1980~2003년까지의 관련연구들에 대하여 검색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논문을 선정하였다. 사용되어진 검색어로는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심혈관질환 등을 사용하였으며, 다음의 범주에 부합되는 경우에 논문을 표본으로 채택하였다. 첫째, 논문의 제목에 검색어

들이 포함된 경우 둘째, 검색어에 해당하는 질환자를 연구대상자로 한 연구 셋째, 연구대상이 허혈성심질환과 관련된 기록이나 자료들인 경우에도 포함되었다. 해당되는 연구가 학위논문과 비학위논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학위논문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이상의 조건에 포함되는 102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논문의 분석내용 및 방법

1) 분석틀

선정된 논문의 분석틀은 논문분석과 관련된 기존문헌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분석기준을 조정하였다. 분석기준의 타당도 검정을 위해 3인의 간호학 교수와 사전논의 및 검토를 하였으며,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발표년도 : 5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 (2) 논문출처 : 학위논문은 석사, 박사학위논문으로 분류하였고, 학위자의 소속대학원별로 일반대학원,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등으로 분류하였다. 비학위논문은 대한간호학회지, 대한간호 및 간호관련 학회지, 동서간호학연구지, 간호탐구, 기타학술잡지 등으로 분류하였다.
- (3) 연구설계 : 실험연구(순수실험, 유사실험, 원시실험), 비실험연구(서술적 조사연구, 상관관계 연구, 비교연구), 질적연구(현상학적 연구, 문화기술지, 근거이론, 기술사적 사례연구, 담론분석으로 분류), Q방법론으로 분류하였다.
- (4) 연구대상자와 수: 연구대상자는 환자, 간호사, 일반인, 기록지, 기타 등으로 분류. 연구대상자 수는 50명 미만부터 시작하여 50명 단위로 구분하였다.
- (5) 자료수집방법 : 자가보고, 면담, 관찰, 기록지, 생리·물리적 측정, Q방법론으로 구분하였다.
- (6) 측정도구 : 생리적 측정도구, 기록자료 및 기록지, 심리척도와 설문지, 시각적 상사척도, 분류척도로 분류하였다.
- (7) 자료분석방법 : 서술통계(백분율, 평균치, 표준편차), 추론통계(X^2 , t, F, r), 고급통계(logistic,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사후검정, 도구검정, 요인분석(Q factor, R factor)으로 구분하였다.
- (8) 실험연구는 사용한 간호중재에 따른 대상자유형과 중재결과를 분석하였다.
- (9) 질적연구는 대상자별 연구주제를 분류하고, 결과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였다.

2)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연구논문은 분석틀에 의해 분류, 분석하고 연구목적에 따라 백분율로 통계처리하거나 내용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논문을 검색하기 위한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이 불가능한 논문들, 즉 최근의 자료로서 아직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각 검색사이트의 기술부족과 제공정보의 불충분으로 인하여(예, 관련검색어의 분류미흡으로 인한 검색의 어려움 등) 검색이 불가능한 논문들에 대해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파악되어진 연구경향에 대해서 허혈성심질환 관련 간호학 전체논문의 연구동향으로 확대해석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 논문의 특성

본 연구대상 논문 102편을 분석한 결과 연구논문의 특성은 <표 1>, <표 2>와 같다. 연구대상, 자료수집방법, 측정도구, 자료분석방법 등이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분류항목에 모두 표기하였다.

<표 1> 연구대상 논문의 발표년도, 출처 및 연구설계 (N=102)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발표년도	80-84	1	1.0
	85-89	6	5.9
	90-94	11	10.8
	95-99	41	40.1
	2000-	43	42.2
논문의 출처	학위논문	69	67.6
	비학위논문	33	32.4
연구설계	실험연구	38	37.2
	비실험연구	61	59.8
	질적연구	3	3.0
	Q방법론	-	-
계		102	100.0

허혈성심질환 관련 학위논문 연구출처는 학위논문이 69편(67.6%)으로 비학위논문의 수 33편(32.4%)보다 많게 나타났다. 발표년도는 2000년 이후가 4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95년에서 99년 사이가 40.1%로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한 논문은 주로 95년 이후에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설계의 경우 총 102편중 99편이 양적연구였

<표 2> 연구대상 논문의 연구대상, 자료수집방법, 측정도구, 자료분석방법 (N=102)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연구대상	환자	80	78.4
	간호사	2	2.0
	일반인	6	5.9
	기록지	19	18.6
	기타(중재빈도, 공중근무자)	2	2.0
자료수집방법	자가보고	89	87.3
	면담	6	5.9
	관찰	7	6.9
	기록지	19	18.6
	생리·물리적 측정	26	25.5
	Q 방법론	-	-
	측정도구	생리적 측정도구	27
기록자료 및 기록지	19	18.6	
자료분석방법	심리적 척도 및 설문지	88	86.3
	시각적 상사척도	7	6.9
	분류척도	4	4.0
	서술통계	91	89.2
	추론통계	87	85.2
	고급통계	15	14.7
	사후검정	7	6.9
	도구검증	3	3.0
	요인분석	9	8.9

으며, 양적연구 중에는 비실험연구가 61편(59.8%)으로 가장 많았고, 질적연구는 3편(3.0%)으로 매우 적었다.

연구대상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78.4%로 가장 많았고, 자료수집방법은 자가보고가 87.3%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은 생리·물리적 측정(25.5%), 기록지(18.6%)의 순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측정도구는 심리적 척도 및 설문지가 86.3%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자료분석방법은 102편의 대부분이 서술통계(89.2%)와 추론통계(85.2%)를 사용하였으며, logistic과 regression의 고급통계를 이용한 논문도 15편(14.7%)이 되었다.

2. 발표년도별 연구출처, 연구설계, 학위논문저자 소속대학원

허혈성심질환과 관련된 논문의 발표년도별 연구출처와 연구설계 및 학위논문저자 소속대학원을 조사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간호관련 학회지는 대한간호학회 산하 학회지로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간호학회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기본간호학회지가 해당되었으며, 기타학술잡지에는 한국보건간호학회지가 해당되었다.

학위논문 중 박사학위논문의 출처년도는 2000년 이후가 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학위논문은 95~99년에 24편으

<표 3> 발표년도별 연구출처, 연구설계 및 학위논문저자 소속대학원

(N=102)

특성	연도	80~84 실수(%)	85~89 실수(%)	90~94 실수(%)	95~99 실수(%)	2000~ 실수(%)	실수(%)
학위논문출처							
박사		-(-)	-(-)	1(1.0)	2(2.0)	4(4.0)	7(6.9)
석사		1(1.0)	4(4.0)	11(10.8)	24(23.5)	22(21.6)	62(60.7)
비학위논문출처							
대한간호학회지		-(-)	2(2.0)	-(-)	4(4.0)	7(7.0)	13(12.7)
대한간호, 간호관련 학회지		-(-)	-(-)	1(1.0)	6(5.9)	8(7.8)	15(14.7)
동서간호학연구지		-(-)	-(-)	-(-)	1(1.0)	1(1.0)	2(2.0)
간호학탐구		-(-)	-(-)	-(-)	1(1.0)	-(-)	1(1.0)
기타학술잡지		-(-)	-(-)	-(-)	-(-)	2(2.0)	2(2.0)
연구설계							
실험연구		1(1.0)	1(1.0)	5(5.0)	12(11.8)	19(18.6)	38(37.2)
비실험연구		-(-)	5(5.0)	6(5.9)	27(26.5)	23(22.5)	61(59.8)
문화기술지		-(-)	-(-)	-(-)	-(-)	-(-)	-(-)
사례연구		-(-)	-(-)	1(1.0)	-(-)	-(-)	1(1.0)
현상학		-(-)	-(-)	1(1.0)	-(-)	1(1.0)	2(2.0)
근거이론		-(-)	-(-)	-(-)	-(-)	-(-)	-(-)
담론분석		-(-)	-(-)	-(-)	-(-)	-(-)	-(-)
Q방법		-(-)	-(-)	-(-)	-(-)	-(-)	-(-)
학위논문저자 소속대학원							
일반대학원		1(1.0)	2(2.0)	4(4.0)	17(16.7)	21(20.6)	45(44.1)
보건대학원		-(-)	1(1.0)	2(2.0)	6(5.9)	3(3.0)	12(11.7)
행정대학원		-(-)	-(-)	1(1.0)	2(2.0)	1(1.0)	4(4.0)
교육대학원		-(-)	1(1.0)	4(4.0)	2(2.0)	1(1.0)	8(7.8)

로 가장 많았다. 비학위논문의 출처를 살펴보면 대한간호학회지가 13편, 성인간호학회지가 11편, 기본간호학회지 2편, 동서간호학연구지 2편 등의 순이었다.

비실험연구 61편 중 대부분은 서술적 조사연구(36편)와 상관관계연구(18편)였고, 일부(7편)는 비교연구였다. 비실험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95~99년 사이였으며, 27편(26.5%)으로 나타났다. 1980년 이후로 연차에 따라서 실험연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00년 이후의 시기에 실험연구가 가장 많이 실시되어졌다. 전체 실험연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유사실험설계 30편, 원시실험연구 6편, 순수실험연구 2편의 순이었다. 질적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2편과 사례연구 1편으로 적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허형성심질환 관련연구는 85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95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례연구는 90~94년 사이에 1편이 이루어졌으며, 질적연구로서의 현상학적 연구 역시 90~94년 사이에 1편, 2000년 이후에 1편이 있었다. 학위논문저자가 가장 많이 소속된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으로서 69편의 학위논문 중 45편(44.1%)이 해당되었다.

3. 연구유형별 대상자와 대상자수

연구유형별 대상자와 대상자수를 확인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대상자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상자에 모두 표기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실험연구의 경우에는 환자(34편), 일반인(4편), 가족, 기록 등의 순이었으며, 비실험연구인 경우에는 환자(46편), 기록지(18편), 일반인(11편)등의 순이었다. 질적연구의 경우에는 3편 모두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설계에 따른 대상자 수는 실험연구의 경우 50명 이하가 27편(2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실험연구에서는 51~100명이 26편, 101~150명이 14편, 그리고 151명 이상 13편의 순서를 나타냄으로써, 비실험연구가 실험연구보다 대상자수를 많이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의 대상자수를 보면 현상학적 연구 2편에서는 각각 21명과 11명이었으며, 사례연구의 경우에는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4> 연구유형별 대상자와 대상자수 (N=102)

연구유형	실험연구 실수(%)	비실험연구 실수(%)	질적연구 실수(%)	실수(%)
대상자 특성				
대상자 환자	34(33.3)	46(45.1)	3(3.0)	83(81.4)
간호사	-(-)	2(2.0)	-(-)	2(2.0)
가족	2(2.0)	4(4.0)	-(-)	6(6.0)
일반인	4(4.0)	11(10.8)	-(-)	15(14.8)
기록지	1(1.0)	18(17.6)	-(-)	19(18.6)
기타	-(-)	2(2.0)	-(-)	2(2.0)
대상자수				
~50	27(26.5)	8(7.6)	3(3.0)	38(37.2)
51~100	11(10.8)	26(25.5)	-(-)	37(36.4)
101~150	-(-)	14(13.7)	-(-)	14(13.7)
151~	-(-)	13(12.7)	-(-)	13(12.7)

4. 실험연구의 간호중재별 대상자 유형 및 중재결과

실험연구 38편을 대상으로 간호중재별로 대상자 유형과 중재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실험연구에서 사용된 간호중재로는 교육프로그램(건강증진, 동기강화, 가족참여 환자교육, 인터넷 기반 정보제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중재연구가 9편으로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중재연구로서는 심장재활관련 프로그램 중재 8편, 마사지(손, 등마사지)와 정보제공 중재가 각각 4편, 이완술 중재 3편, 음악요법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중재가 각각 2편 등의 순서였다. 이외에 심상요법이나 경피적 신경 자극 등의 중재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표 5> 실험연구의 간호중재별 대상자 유형 및 중재결과

(N=38)

간호중재	중재유형	대상자 유형	중재 결과
교육 프로그램	강화	심근경색증환자	지식수준 상승, 건강행위이행 증가.
	동기강화	노년기 여성	지각된 유익성 증가, 지각된 장애성 감소, 감정적 몰출감소, HDL & LDL 콜레스테롤 감소, 혈압, 비만, 스트레스 감소.
	건강행위	관상동맥질환자	식이요법, 일상생활에서 높은 이행정도 보임.
	인터넷 기반	관상동맥질환자	자가간호지식 상승. 영상적 교육효과로 인하여 기존의 방법보다 큰 효과가 저음.
	가족참여 환자교육	관상동맥질환자	자가간호에 대한 가족의 지식증진, 가족지지 행위와 자가간호수행 증가. 가족구성원들의 감정적·지식적 지지와 직접도움 증가, 환자의 자가간호 행위 증가.
	조직적 환자교육	심도자술, 심혈관조영술환자	검사 중 환자의 협조증가.
	구조화된 간호교육	심혈관조영술환자	불안감소, 수축기·이완기혈압 감소.
	프로그램	심근경색증환자	불안감소, 건강행위 이행증가, 삶의 질 증가.
	교육프로그램	허혈성심질환자	건강행위이행정도 증가, 혈중 HDL 콜레스테롤 증가, 운동내성 증가.
	1단계 재활간호	급성심근경색증환자	환자의 질병관련 지식수준상승, 건강행위이행 증가.
심장재활	1기 재활프로그램	급성심근경색증환자	지식상승, 불안감소, 자가간호행위 증가.
	1기 재활프로그램	심근경색증환자	자기효능감 및 건강행위이행정도 증가, 불안감소.
	원내 재활프로그램	심혈관질환자	자기효능감 등 일부동기부여. 삶의 질 향상효과.
	TES프로그램	심근경색증환자	운동능력증가, 불안감소, 자기효능 및 환자이행행위 증가.
	손	허혈성심질환자	불안, 수축기 혈압, 동통의 감소.
마사지	등	PTCA 시술자	수면시간, 수면의 만족도에 영향주지 못함.
	예비감각	심도자검사환자	불안감소, 불편감 감소.
정보제공	감각	심혈관조영술환자	불편감 감소.
	계획된 지지간호	PTCA 시술자	대응양상에 따른 상태불안에 영향 못 줌.
	컴퓨터 이용	관상동맥조영술 환자	불안감소, 검사 중 느끼는 주관반응정도 감소.
이완술	컴퓨터 이용	관상동맥조영술 환자	불안, 통증, 활력징후 감소, 스트레스감소.
	사용회수	관상동맥질환자	검사전 불안상태, 수축기혈압, 맥박, 검사 중 불편감과 긴장정도의 감소.
	정보제공	관상동맥질환자	상태불안, 맥박수, 혈압의 감소.
음악요법	정보제공	심도자검사환자	이완술 실시회수의 증가에 따라 상태불안과 혈압감소.
	정보제공과 병행	심혈관조영술환자	불안감소, 고통과 피로감소.
	정보제공과 병행	심혈관조영술환자	상태불안 감소, 정보제공에 병행하여 음악요법을 사용함으로써, 상태불안, 이완기혈압 및 불안행동의 감소.

<표 5> 실험연구의 간호중재별 대상자 유형 및 증재결과(계속)

(N=38)

간호중재	중재유형	대상자 유형	중재 결과
건강증진프로그램		중년기 여성 일반직장인	건강증진행위 증가, 수축기 혈압의 감소. 수축기혈압감소, ALT와 r-GTP 감소, 식이조절과 건강증진행위에 효과적.
운동요법, 경피적 전기 신경자극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은 환자	운동요법의 요통완화효과, 운동요법에서 진통제의 사용빈도 감소.
자기효능 정보자원프 로그램		관상동맥질환자	지각된 자기효능감 증가, 자가간호행위 증가.
검사전 투약과 비투약 심상요법		심혈관조영술환자 관상동맥질환자	검사전후의 불안, 혈압, 맥박, 상태불안에 영향주지 못함. 불안과 맥박수 감소, 수축기혈압 감소정도 큼.
대퇴동맥압박방법		심혈관조영술환자	기계적 방법보다 수기적 방법을 제공받은 환자에서 혈종발생을 및 출혈발 생율 감소.
중환자실 가족면회		허혈성심질환자	가족면회 전·중·후의 생리적 반응에 긍정적 변화, 상태불안 감소.

교육프로그램이나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식수준상승, 건강행위이행 증가, 자기효능감 증가 및 삶의 질 증가 등의 효과가 있었다. 특히 가족참여 환자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식증진과 환자에 대한 지지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완요법이나, 심상요법, 감각정보제공 등의 중재효과로서는 불안과 통증의 감소, 활력징후의 안정 및 스트레스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질적연구의 대상자, 주제 및 연구결과

질적연구와 관련한 연구대상자, 주제 및 연구결과는 <표 6>와 같다.

허혈성심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는 3편이었으며, 현상학적 방법(2편)과 사례연구(1편)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경험을 파악하고 경험의 의미, 반응을 설명하였다.

IV. 논 의

신진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허혈성심질환 관련 연구를 폭넓게 실시하여 도출되어진 연구결과들을 환자에 적용함으로써, 효율적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져 사망률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표 6> 질적연구의 대상자, 주제, 연구결과

대상자	주제 저자(연도)	연구 결과
심근경색증 환자 21명	희망원 김순옥(199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존하는 희망원은 인간(의사, 의료팀, 가족, 친지), 인위적인 것(의료진의 기술, 최신의료장비, 새로 개발된 수술방법의 치료효과)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가장 강력한 희망원은 담당의사로 나타남. 2) 미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희망원은 의학의 발전가능성과 자신의 투병의지로 나타남. 3) 희망원에 따른 희망의 양상은 희망원이 의사나 의료팀인 경우는 믿음, 가족의 경우에는 지지, 부양 의무, 친지인 경우에는 위로로 그리고 희망원이 자신인 경우에는 의지의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4) 희망원으로 종교를 언급한 사람은 종교를 가진 대상자의 수보다 적었으나 기독교 환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자신의 희망원으로 언급.
관상동맥조영 술을 경험한 환자 11명	관상동맥조영술 체험 박금주(20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슴이 오그라들고, 숨통이 막혀옴” : 관상동맥조영술을 받게 되기까지의 경험. 움푹달랴 할 수 없었다고 함. 2) “죽음이 눈앞에 다가옴-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 시술을 받기 위해 병실을 떠나올 때부터 검사실의 검사대에 누울 때까지의 경험. 죽음에 대한 공포. 3)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두려움” : 관상동맥조영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검사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경험함. 4) “무언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후끈함” : 시술을 하는 동안 몸속에서 움직이는 느낌은 무방비 상태에서의 경험. 5) “의술의 발달에 대한 신기함 - 세상은 이렇게 좋아졌구나” : 시술을 무사히 마친 후 최첨단의 기계와 최신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신기함과 놀라움의 경험. 6) “쭉 뻗은 신장로를 달리는 시원함” 7) “다시 살아났다는 안도감” : 시술을 마친 후 예전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던 기억과 비교하는 경험.

<표 6> 질적연구의 대상자, 주제, 연구결과

대상자	주 제 자(연 도)	연 구 결 과
심혈관계 중환자실 환자 14명	중환자실 입원경험 박 연 옥 (1993)	1) 도착당시 : 중환자실 자체와 질병예후에 대한 두려움, 살 수 있다는 안도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무력감, 보호자 없음으로 인한 고립감, 마취 깬 후의 지남력 상실의 경험. 2) 안정기 : 폐쇄병실의 지루함, 답답함, 갇힌 느낌. 기계나 조명 등의 자극으로 인한 수면장애, 불쾌감 경험. 간호사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른 충족정도에 따라 친절함, 신뢰감, 쓸쓸함, 섭섭함 등을 경험. 3) 병실로 올라가는 퇴원시기 : 보호자와 함께 지내는 기대감, 몸의 움직임 자유로워지며, 다른 사람과도 이야기 가능하다는 해방감 경험. 간호사와의 친밀감 형성시기. 4) 특기사항 : 도착당시의 고통스러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 시는 주로 신체적 고통보다는 정서적, 심리적 경험을 중점적으로 표현. 이는 환자에게 정서적, 심리적 경험이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

그 결과 서구 선진국 특히 미국의 심근경색증 사망률은 최근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정균, 1993). 핀란드 역시 관상동맥질환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관상동맥질환의 발생과 위험인자들의 감소를 위해 보건교육과 대증매체를 통하여 흡연과 포화지방산 섭취와 같은 개인적인 행동양상을 좀더 건강한 생활방식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하였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허혈성심질환 관련 연구는 80년대 전반에 1편 뿐이었으나, 90~94년에는 11편(10.8%), 95~99년에는 41편(40.1%),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43편(42.2%)로서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허혈성심질환 관련 연구는 95년 이후에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허혈성심질환자의 증가추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우리의 식습관이 서구화됨에 따라 고지방식을 섭취하여 발생하게 되는 비만질환의 증가와 함께 운동부족에 따른 원인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허혈성심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상승은 국가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다(보건복지부, 1999).

본 연구대상의 출처는 학위논문이 69편(67.6%), 비학위논문이 33편(32.4%)이었으며, 비학위논문 중 대한간호학회지와 성인간호학회지가 각각 13편, 11편씩이었다. 대상논문은 학위논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다른 주제와 관련된 논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질환을 다룬 학위논문들은 다양한 학회지에 제차 발표되어지는 경우를 검색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대상논문의 선택과정에서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서 학위논문을 우선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이유에 의해 대상논문 중 학위논문의 비율이 많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검색어로서 도출되어진 다양한 심질환 관련 연구논문들이 많았으나, 연구대상자가 넓은 의미의 심장질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석대상논문에서 제외된 것에서도 간접

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90년 이후 꾸준히 이루어진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내의 학위과정 개설증가에 따른 간호사들의 연구기회의 확대가 연구업적 출판의 증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허혈성심질환 관련 연구는 조사연구 또는 상관관계 연구가 주를 이루는 비실험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95년 이후에 발표되었다. 이 결과는 국내 노인간호연구 분석을 실시한 이영란 등(1998)의 노인간호연구에 대한 연구분석에서 조사연구, 상관관계연구가 가장 많은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김분영(1997)의 명상관련 논문분석에서 실험연구설계가 많은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허혈성심질환이나 노인과 관련한 연구는 관련요인, 대상자들의 지식이나 태도, 요구도 조사 등의 기초적 조사자료의 내용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시행된 것에 반해, 명상과 관련한 연구는 명상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중재를 포함하는 실험연구가 많았음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전체 논문 102편 중 실험연구는 38편이지만, 이는 연차의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비실험연구에서 발견되어진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한 간호중재 개발과 적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수에서는 비실험연구의 경우 연차가 증가할수록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실험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측정개념이나 관련변수들 역시 과거의 연구에 비해서, 현재의 연구들이 훨씬 복합적이고 다양한 변수들을 측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최근의 실험연구에 있어서는 측정도구나 자료수집방법에 있어서 설문지를 통하는 자가보고 형식과 기록자료를 병합하여 이용하며, 생리적·물리적 측정을 함께 실시하는 입체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구의 세련화와 연구결과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서, 이를 더욱 확대 이용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간호사들이 허혈성심질환자들에게 실제로 행하고 있는 간호중재를 대상으로 한 경우(1편)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하는 항공기 승무원 등의 공중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편)가 소수 있었다. 그리고 학위논문의 경우 일반대학원을 중심으로, 간호사들이 소속하고 있는 특수대학원들에서도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형태의 양적연구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다른 질환이나 간호현상에 대하여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질적연구방법에 의한 연구가 본 연구 대상 질환에 있어서는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 본 연구의 대상질환인 허혈성심질환에 대한 양적연구의 결과와 질적연구 결과의 발전적인 조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수집방법은 자가보고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측정도구에 있어서는 설문지 및 심리척도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적연구는 대상자들에 대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한 개념측정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본 질환관련 연구분석 결과 전체 102편 중 양적연구는 99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 중에서는 비실험연구인 서술적 조사연구와 상관관계연구가 주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 결과들에 대한 통계처리에 있어서 서술통계와 추론통계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양적연구에서의 기본적 통계처리방법으로서 자료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양적연구에서의 고급통계를 적절히 적용하여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연구에서는 교육프로그램과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국외의 연구(Ades, Pashowkow & Nestor, 1997; Conn, Taylor & Casey, 1992; Thompson, 1995)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는 경향으로서 이러한 중재연구의 증가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이다. 허혈성 심질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효과는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유도하였으며, 최근에는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은 영상적 특성을 가짐으로 인해 과거의 교육방법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교육프로그램과 재활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개발의 차원이 아닌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 대안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비용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적용에 앞서서, 고혈압을 가진 노인인구에 대하여 적절한 저칼레스테롤 식이를 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비용효과 면에서 기본적인 전략임을 함께 명심해야 할 것이다(Field et al., 1995).

허혈성심질환 관련 간호연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관상동맥질환과 관련한 기초연구가 과거에는 많았으나, 최근에는 심장재활 프로그램개발이나 pathway개발 등의 실무적용에 기초한 연구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급속하게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풍요의 질병'으로 일컬어지며, 대표적 만성질환으로 인식되어지는 본 질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본 질환의 대상자 뿐 만 아니라, 대상자들을 간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특히 가족구성원들)의 부담감 역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90년 중반 이후 허혈성심질환 관련 연구의 여러 학문에 걸친 다양한 연구의 증가는 허혈성심질환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한국 간호연구의 주요한 취약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모델과 간호현상의 통합의 미흡함에 대하여(오가실 등, 1992; 김희결과 이영숙, 1995) 보완이 이루어져, 오가실 등(1992)의 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임상에 적용 가능한 연구, 이론을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허혈성심질환과 관련한 간호학과 간호학관련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현재까지의 국내 허혈성심질환과 관련된 간호연구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1980년부터 2003년 3월까지 국내의 허혈성심질환 관련 간호학논문 102편을 대상으로 출판시기, 연구설계, 실험연구의 중재효과 및 질적연구의 주제 등과 같은 논문의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허혈성심질환 관련 논문은 1980년 이후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0년 이후의 논문의 발표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1995년 이후의 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 허혈성심질환 관련 논문은 총 102편 중 69편이 학위논문으로서 일반대학원 저자가 많았으며, 33편은 비학위논문이었다.

- 연구설계별 분포는 양적연구가 99편이었으며, 질적연구는 3편이었다. 비실험연구는 조사연구, 상관관계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3. 양적연구 중의 비실험연구는 95~99년 사이가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실험연구는 2000년 이후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연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이다. 연구대상은 환자가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록지와 일반인의 순이었다. 대상자 수는 실험연구의 경우 0~50명 이하가 27편으로 가장 많았고, 비실험연구에서는 51~100명이 26편으로 가장 많았다. 질적연구에서의 연구대상자 수는 현상학적 연구의 경우는 21명과 11명이었고, 사례연구에서는 14명이었다.
 4. 실험연구에 사용되어진 간호중재는 교육을 통한 프로그램, 심장재활프로그램, 마사지, 이완술, 음악요법과 감각정보 제공 등이었다. 간호중재 대부분은 생리적 효과, 일상생활 동작 및 자기효능감의 증가, 불안감소, 삶의 질 향상 등이 검증되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었다.
 5. 허혈성심질환과 관련된 질적연구는 학위논문 2편, 비학위논문 1편이었으며, 주제는 회망원, 관상동맥조영술 체험, 중환자실 입원경험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첫째, 허혈성심질환자의 건강중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중재의 반복적인 수행을 통한 충분한 이론적 근거를 밝히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 둘째, 이러한 질환의 연구가 개인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학술교류나 공동연구노력 등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셋째, 허혈성심질환자 본인과 그의 관계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체험과 경험을 담은 질적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문영 (1997). 명상관련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간호학회지*, 27(4), 923-932.

김수진, 최경숙 (1999). 국내 관상동맥질환 관련 간호학위논문 분석. *중앙간호논문집*, 3(2), 11-23.

김희걸, 이영숙 (1995). 우리나라 간호학 및 간호학 관련 학위논문 분석. *대한간호*, 34(5), 68-79.

보건복지부 (1999). *보건복지 통계연보*

오가실, 신희선, 김희순 (1992). 우리나라 간호연구의 현황

과 문제. *대한간호*, 31(3), 76-86.

오복자 (1994). *위암환자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 예측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란, 김신미, 박혜옥, 박효미, 조계화, 노유자 (1998). 국내 노인간호연구 분석과 발전방향. *대한간호학회지*, 28(3), 676-694.

이원로 편저 (1998). *임상심장학*. 서울 : 고려의학.

이은옥, 이은주, 이은희, 전경자, 김주현, 박재순, 이명숙, 정면숙 (1992). 불안 및 스트레스를 다룬 국내 간호논문의 분석. *간호학회지*, 22(3), 271-296.

이정균 (1993).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원인의 추이. *대한의학협회지*, 36(3), 300-304.

통계청 (2000). *사망원인 통계원보*

Ades, P. A., Pashokow, F. J., & Nestor, J. R. (1997). Cost-effectiveness of cardiac rehabilitation after myocardial infarction. *J Cardiopulm Rehabil*, 17, 222-231.

Asadi-Lari, M., Packham, C., Gray, D. (2003). Patients'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coronary artery disease. *Health Qual Life Outcomes*. 22(1), 57.

Brennan, R. T., & Braslow, A. (1998). Are we training the right people yet? A survey of participants in public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lass. *Resuscitation*, 37(1), 21-25.

Conn, V. S., Taylor, S. G., & Casey, B. (1992).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 participation and outcomes after myocardial infarction. *Rehabil Nurs*, 17(2), 58-61.

Field, K., Throgood, M., Silagy, C., Normand, C., O'Neill, C., & Muir, J. (1995). Strategy for reducing coronary risk factors in primary care. *BMJ*(1995), 29, 1109-1112.

Gott, D. C. Jr., Gu, L., Cantley, L. K., Sheedy, D. J., & Cohen, S. J. (2003). Quality of care for secondary prevention for patients with coronary heart disease. *Am Heart J*, 146(6), 1045-1051.

Jeng, C. L., & Braun, T. (1997).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exercise intensity, compliance rate and cardiac rehabilitation outcomes among coronary artery disease patients. *Prog Cardiovasc Nurs*, 12(1), 13-24.

Kliegel, A., Scheinecker, W., Sterz, F., Eisenburger,

- P., Holzer, M., & Laggner, A. N. (2000). The attitudes of cardiac arrest survivors and their family members towards CPR course. *Resuscitation*, 47(2), 147-154.
- Mary Moynihan. (1984). Assessing the Educational Needs of Post-Myocardial Infarction patient. *Nurs Clin North Am*, 19(3), 441.
- Niebauer, J., Hambrecht, R., Schliert, G., Marburger, C., Kalverger, B., Kubler, W., & Schuler, G. (1994). Five years of Physical exercise and low fat Diet : effects on progression of coronary artery disease. *J Cardiopulm Rehabil*, 15(1), 47-64.
- Nolan, M., & Nolan, J. (1998). Cardiac rehabilitation following myocardial infarction. *Br J Nurs*, 7(2), 219-225.
- Platz, E., Scheatzle, M. D., Pepe, P. E., & Dearwater, S. R. (2000). Attitudes towards CPR training and performance in family members of patients with heart disease. *Resuscitation*, 47(3), 273-289.
- Scheure, R. (1972). Coronary care nurse training program. *Nurs Res*, 21(3), 228-232.
- Stewart, K. J. Goldberg, A. P. (1992). Exercise, lipids, and obesity in adolescents with parental history of coronary disease. *Am J Health Promot*, 6(6), 430-436.
- Thompson. D. R. (1995). Cardiac rehabilitation : how can it be improved? *J Psychosom Res*, 39(5), 519-523.
- Vecchia, L. C. (1992). Sex hormone and cardiovascular risk. *Hum Reprod*, 7, 162-167.
-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은정 (2001).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후 절대안정시간에 따른 불편감과 출혈합병증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2001). 중환자실 관상동맥질환자의 수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금순, 박광옥 (1989). 급성 심근경색 후에 일상활동 정도와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1), 108-117.
- 김기연 (1997). 관상동맥우회술을 위한 *Critical Pathway*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옥 (1998). 부산지역 대학병원에 내원한 관상동맥질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숙 (1997). 심혈관계중환자에서 간호중재민도에 대한 조사 - Iowa 대학의 NIC 이용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1999). 정보제공과 음악요법이 심혈관조영술 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영 (1998). 관상동맥질환자의 강인성, 자기효능과 건강행위 이행과의 관계. *동서간호학연구지*, 3(1), 83-95.
- 김순애 (1987). 이완술 정보제공이 심도자 검사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회지*, 17(2), 110-115.
- 김순옥, 이미라 (1992). 심근경색증 환자들이 지각하는 희망원에 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4(1), 17-29.
- 김영미 (1997). 관상동맥질환자의 사회적지지, 대처방식이 치료지시이행에 미치는 영향 - 부산시내 1개 병원을 대상으로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정 (1998). 관상동맥중재술 후 추적 관상동맥조영술 실천에 대한 조사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2001). 남성 관상동맥질환자의 금연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경, 김매자, 송미령 (2002). 관상동맥질환자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2(3), 355-363.
- 김은실 (2002). 등마사지가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확장술 후 환자의 불편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자 (1992). 관상동맥질환환자의 지식정도와 치료지시이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조자, 김기연 (1997). 예비감각정보가 심도자 검사환자의 대응양상에 따라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회지*, 27(3), 648-659.

분석대상 논문목록

- 고경희 (1998). 강릉시 일 종합병원을 내원한 관상동맥질환자의 역학적 특성과 교육요구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미옥 (1981). 심도자술과 심혈관조영술 검사 전에 시행된 조직적인 환자교육의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경남 (1994). 계획된 정보적 지지간호와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성형술 환자의 스트레스와 통증감소에 미치는 효과.

- 김조자, 김기연 (1999). 심근경색증 환자의 증상발현과 치료 추구행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9(3), 605-613.
- 김조자, 김기연, 장연수 (2000). 심근경색증 환자의 상황적, 임상적 요인 및 사회심리적 요인과 치료추구행위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2(3), 323-333.
- 김조자, 김희순 (1997). 심도자 환자를 위한 구체적 객관적 (감각)정보의 개발. *간호학회지*, 27(2), 433-443.
- 김조자, 허혜경 (1996). 심도자 검사 환자의 기질 불안과 대응양상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35(1), 81-93.
- 김조자, 허혜경, 이종경 (1999). 일부지역 성인의 심근경색 증에 대한 지식조사. *성인간호학회지*, 11(2), 288-297.
- 김춘심 (1999). *관상동맥질환여성의 성기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경 (1998). *공중근무자의 심혈관질환 유해요인 확인을 위한 환자 대조군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승, 박민정 (2000). 관상동맥우회술 환자의 수술 후 재발 관련 지식과 교육요구도와의 상관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0(3), 549-559.
- 김희승, 정혜선, 한경실 (1998). 40, 50대 남녀별 체중, BMI와 관상동맥질환 위험인자 간의 상관정도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28(1), 184-192.
- 남달리 (1998). *관상동맥질환의 가족의 질병관련 지식정도*와 교육요구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명희 (1997). *관상동맥질환자의 건강신념 및 자기효능감과 운동 및 식이요법 이행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미혜 (1990). *관상동맥질환자의 교육적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숙희 (1999). *폐경기여성의 비만도와 골밀도 및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와의 상관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정순, 정혜선 (2001). 심근경색증 초발 환자들의 질병관련 지식과 교육요구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5(2), 275-284.
- 박경민 (1998). 한국중년기 남성의 심혈관계 질환 위험요인과 음식섭취와의 관련성. *지역사회간호학회지*, 9(1), 232-241.
- 박금주 (2000). *간호대상자의 관상동맥 조영술 체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희 (2002). *음악요법이 심혈관조영술 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정 (1999). *관상동맥우회술 환자의 지식정도와 재발에 대한 교육요구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옥 (1993). *심혈관계 중환자실환자의 입원경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오장, 김조자, 이향련, 이해옥 (2000).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임상적 증상과 치료추구시간의 지연. *대한간호학회지*, 30(3), 659-669.
- 박정숙 (2002).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중년기 여성의 건강증진행위와 심혈관계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14(2), 233-243.
- 박지원, 김용순, 김기연 (2002).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직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2(2), 196-205.
- 배윤경 (2001). *대퇴동맥과 요골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 조영술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진희 (1999). *관상동맥질환자와 가족의 식이관리 지식과 교육요구 조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민아 (2000). *허혈성심질환자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성원 (2002). *1년간 울동체조에 참여한 시설여성노인의 동기수준,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및 기능상태의 변화*.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광숙 (1999). *허혈성심장질환자와 간호사의 통증지각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경자 (1986). *관상동맥질환자와 정상인의 행동양상 비교 연구 - 수정된 Jenkins의 A형 행동양상 척도를 이용하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라윤, 이해정 (2000). 원내 심장재활프로그램이 심혈관질환자의 행동수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30(2), 463-475.
- 송라윤, 전경자, 노유자, 김춘길 (2001). 동기강화프로그램이 노년기 여성의 건강행위,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및 기능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31(5), 858-870.
- 송복례 (1998). *고인슐린혈증과 심혈관계질환 위험요인과의 관련성*.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진 (2000). *관상동맥우회술 환자의 성별에 따른 회복기 건강상태의 차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주영 (1999). *자기효능 정보자원 프로그램이 관상동맥질환자의 지각된 자기효능감과 자가간호행위에 미치는 영향*.

- 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혜민 (2000). 관상동맥질환자의 추후관리 교육요구도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애리 (1999). 관상동맥질환자 가족의 간호요구에 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은 (2001). 관상동맥질환자의 건강행위와 가족 지지의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혜리 (1989). 관상동맥질환자의 A형 행동양식과 대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현 (2002). 중환자실에서의 가족면회가 허혈성 심질환자의 생리적 반응과 불안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음경옥 (2000). 심상요법이 관상동맥질환자의 불안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연 (2001). 관상동맥질환 재발자의 질병관련지식과 치료지시 이행정도 및 응급실 내원 지원시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 (1996). 심혈관조영검사전 투약과 비투약이 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혜 (2001). 심혈관 질환자의 건강신념과 환자역할행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자 (1986). 일 종합병원 심혈관계 질환자의 치료지시 이행과 관련요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안라 (1990). 이완술이 중환자실 관상동맥질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선 (2002). 일부지역 주민들의 비만도와 관상동맥질환 위험인자와의 관련성.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실 (1998). 구조화된 간호교육이 심혈관촬영술 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효과.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자 (1993). 이완술 사용횟수에 따른 관상동맥질환자의 불안정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희 (1992). 관상동맥질환자의 건강행위에 대한 교육효과.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숙 (1993). 감각정보제공이 심혈관조영술검사 환자의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란 (1999). 심혈관조영술 후 대퇴동맥 천자부위 압박방법이 출혈성 합병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숙 (1991). 관상동맥심장질환의 역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란 (1998). 1단계 심장재활프로그램이 심근경색증 환자의 일상생활수행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란, 박정숙 (1997). 관상동맥질환자의 A유형 행동양상과 건강통제위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9(3), 531-544.
- 이혜란, 박정숙 (1998). 1단계 심장재활간호가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지식, 불안 및 자가간호행위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10(2), 353-368.
- 임미영 (1992). 관상동맥성 심장질환과 A유형 행동양상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남조 (1994). 관상동맥질환자의 행동양상에 대한 조사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인 (2001).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제공이 관상동맥조영술 대상자의 검사 전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이 (2002). 관상동맥질환자를 위한 인터넷기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영선 (2002). 급성 심근경색증환자의 제1기 심장재활 프로그램이 퇴원 후 자기효능감과 건강행위이해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선 (2001). 강화교육프로그램이 심근경색증 환자의 질병관련 지식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8(2), 259-269. 기본간호학회지, 8(2), 259-269.
- 정혜선 (2001). 심근경색증 환자의 죽상경화증 위험요인별 질병관련 지식과 건강행위 이행. 성인간호학회지, 13(4), 529-538.
- 정혜선 (2001). 심장재활 프로그램이 심근경색증 환자의 건강행위와 생리적 지수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혜선, 김희승, 유양숙, 문정순 (2002). 심장재활 교육프로그램이 심근경색증 환자의 질병관련 지식과 건강행위 이행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2(1), 50-61.
- 정혜선, 유양숙 (2001). 심근경색증 환자의 질병관련지식과 건강행위 이행. 기본간호학회지, 8(3), 334-345.
- 정혜선, 유양숙, 문정순 (2002). 강화교육 프로그램이 심근경색증 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6(1), 165-175.
- 조현숙 (1999). 허혈성심장환자의 심장재활프로그램 적용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현숙, 김광주 (2000). 심장재활프로그램이 허혈성심장환자의 건강행위이행, 심혈관기능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0(3), 560-570.
- 주은진 (1999). 관상동맥질환자의 행동양식과 스트레스 대

응양상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경옥 (2000). *신규와 기존고혈압 환자의 심혈관 위험요인 및 관리실태 비교*.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기주 (2001).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의 스트레스, 대응전략*, 우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명애, 이명선, 안경애, 임은옥 (2002). *협심증이 의심되어 운동부하검사를 받은 여성들의 흉통에 관한 내용분석*. *성인간호학회지*, 14(3), 459-469.

최영옥 (2002).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치료추구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추진아 (2003). *심근경색증 환자의 심장재활을 위한 TES 프로그램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경실 (1997). *비만유형별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비교*.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숙원 (2002). *관동맥조영술 후 요통완화를 위한 운동요법과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의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14(2), 222-232.

한애경 (1998). *가족참여 환자교육이 가족지지행위와 자가간호수행에 미치는 효과 - 관상동맥질환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애경 (1998). *가족참여 환자교육이 관상동맥 질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미치는 효과*, *간호학탐구*, 7(1), 157-183.

허선미 (2000). *등마사지가 경피적 경혈관 관상동맥성형술 환자의 불안과 불편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경선, 이향련, 공송심, 윤경자, 김현섭, 김효남, 최지원, 김운정 (2001). *손마사지가 허혈성심질환 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13(2), 340-349.

현경선, 이향련, 백승남, 공송심, 윤경자, 김현섭, 김효남, 최지원, 김운정 (2001). *손마사지가 허혈성심질환 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효과*. *동서간호학회지*, 7(1), 105-111.

홍경화 (1996). *심장재활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른 불안, 건강행위이행 및 삶의 질 - 심근경색증 환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경자 (1986). *허혈성 심장질환자 재활간호를 위한 지식경도와 교육요구 파악에 관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stract -

Key concept : Trend of nursing research,
Ischemic heart disease

The Trend and Issues of Nursing Research Related to Ischemic Heart Disease Published in Korea

Lee, Jong Yul* · Lee, Hyang Yeon**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trend of studies related to IHD(Ischemic Heart Disease). This article reviewed 102 researches on IHD conducted from 1980 to 2003, by examining them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sources by publication period, research design, nursing intervention, outcome of experimental research, and theme of qualitative research.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number of studies related to IHD has steadily increased year by year since 1985, and that of the articles was the highest during the post-2000 period. Especially, the majority of researches has published since 1995.
2. The 69 studies were degree of all 102 studies related to IHD, and the majority of articles' authors belonged to graduate school. Thirty three studies were non-degree articles. As for study design, the number of quantitative studies were 99 and that of qualitative studies were 3. Non-experimental research design were largely survey and correlational study.
3. Non-experimental study makes up a high proportion of the quantitative study. The most of experimental studies were accomplished after 2000. The main subjects were patients, chart

*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records and general subjects. The majority number of subjects was like this : while the number of non-experimental study was between 51 and 100, that of experimental study was below 50. The number of subject of qualitative study is like this : the number of phenomenology study was 21 and 11, and that of case study is 14.

4. Nursing interventions used in the experimental study comprised teaching program,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 massage, relaxation, music therapy and providing of sense

information. And the most nursing intervention effects included physiological effect, increased self-efficacy, relieved pain and increased quality of life. Most studies proved to have the affirmative effects.

5. The number of qualitative studies related to IHD is like this : the number of degree articles was 2 and that of non-degree articles was 1. Its themes included resources of hope, the experience of coronary artery angiography and the experience of admission at ICU(Intensive Care Unit).